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2020년3월16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001 천 km ² 	인구 99백만 명 (2019년 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GDP 3,022.6억 달러 (2019년 기준) 	1인당GDP 3,046.6 달러 (2019년 기준) 	통화단위 Egyptian Pound 	환율(U\$기준) 16.8 (2019년 기준) 

- 이집트는 2011~13년 민주화 시위,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한 정권 교체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나, 2014년 집권한 엘시시 대통령이 군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반정부 시위 및 대안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됨.
- 2010년대 초반 정치적 혼란에 이어 2015년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여객기 테러 발생으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자, 이집트 경제는 재정난 심화 및 외환보유액 고갈 등 경제상황 악화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있음.
- IMF로부터 120억 달러 상당 구제금융 수혜조건으로 2016~19년 간 부가세 도입, 보조금 삭감 등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집회·시위법 제정,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시위 및 테러 발생을 억제하고, 치안을 개선한 결과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음.
- 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천연가스전에서 가스 생산 개시, 인구 증가 및 수도 카이로의 과밀 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등 에너지 및 건설 부문 주도로 5%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5. 4. 13 수교 (북한과는 1963. 8. 24 수교)

주요협정 항공협정('88), 문화·과학·기술협정('89), 이중과세방지협약('94), 투자증진·보호협정('97), 외교관·관용·공무·특별사증면제협정('98), 무역협정('9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1,324,894	1,846,769	1,573,207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89,643	312,645	282,013	천연가스, 석유제품, 천연농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52건, 382,18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4.4	4.3	4.1	5.3	5.5
소비자물가상승률	11.0	10.2	23.5	20.9	13.9
재정수지/GDP	-10.9	-12.5	-10.4	-9.4	-7.6

자료: IMF, EU

에너지·관광·건설산업이 경제성장률 견인

- 이집트 경제는 에너지·관광·건설 부문의 주도로 2018년 5%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9년에도 5%대의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됨. 2017년 말 지중해상의 초대형 Zohr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었으며, 201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86억 m³ 규모로 2017년 488억 m³ 대비 20% 증가하였음.
- 관광객 유입은 2016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5.4백만 명 유입) 치안 개선으로 지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1.3백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됨. 2018년 4월 독일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러시아와의 정기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되었으며, 2020년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으로 관광산업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IS에 의한 테러로 추정)으로 사건 발생한 2015년 10월부터 이집트-러시아 정기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된 바 있음.
- 또한, 이집트 정부는 수도 카이로의 인구 과밀현상을 완화하고자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0여 km 떨어진 지역에 700km² 면적(싱가포르 크기)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2020년 중 정부부처 일부 이전 계획)하고 있어 건설 부문도 활발한 상황임.

2016년 말 부가세 및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폭등 이후 안정화 단계

- IMF 권고에 따라 2016년 말 부가세(13%) 및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20%대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환율 안정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9% 수준으로 완화됨.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세가 더욱 약화되어 1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7년부터 크게 위축됐던 민간 소비 및 구매력은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 2018년 달러당 17.77 파운드에서 2019년 16.82 파운드로 이집트 파운드 가치 소폭 상승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감소 추세

- 이집트 정부는 IMF 권고사항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가세 도입(2016년 9월, 13%) 및 인상(2017년 7월, 13%→14%), 매년 연료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온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12.5%에서 2019년 -7.6%까지 개선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17,243	-20,494	-7,940	-6,293	-6,285
경상수지/GDP	-5.2	-6.2	-3.4	-2.5	-2.1
상 품 수 지	-31,389	-31,048	-29,065	-29,590	-33,877
상 품 수 출	19,031	20,018	23,339	28,046	28,389
상 품 수 입	50,420	51,066	52,404	57,635	62,266
외 환 보 유 액	12,123	19,735	32,072	37,642	41,892
총 외 채	48,459	67,641	84,429	98,705	109,138
총외채잔액/GDP	14.6	20.4	35.7	39.6	36.1
D.S.R.	7.7	10.3	8.8	7.5	10.3

자료: IMF, EIU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 이집트의 관광산업은 2011~13년 간 정권 교체로 인한 정정 불안*, 2015년 테러 발생 등 치안 불안으로 2016년 관광객 유입이 연간 5.4백만 명으로 시민혁명 직전이었던 2010년(14.7백만 명) 대비 63% 이상 감소하는 등의 침체를 겪었으며, 그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6.2%를 기록하였음.

* 2011년 2월 '아랍의 봄'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 퇴진, 2014년 5월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 당선

- 이후 엘시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집권하며 테러에 대비한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는 등 치안 강화에 주력한 결과 관광객 유입이 지속 증가하여(2016년 5.4백만 명 → 2017년 8.3백만 명 → 2018년 11.3백만 명),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8년부터 -2%대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4월 카이로의 콥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4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수차례 연장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테러 외 반정부 집회, 시위 등을 막는 수단으로도 이용됨.

외채상환능력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외채 차입 증가

- 이집트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2016~19년 간 IMF로부터 120억 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 외에도 2017년 70억 달러, 2018년 65억 달러, 2019년 2월 및 4월 각각 40억 달러 및 20억 유로 상당의 외채를 조달하였는 바, 외채잔액은 2015년 485억 달러에서 2019년 1,091억 달러로 현저히 증가함.
- 다만, 이집트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 결과 외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임 (2016년 외채잔액은 전년대비 39.6% 증가한 반면 2019년 외채잔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함).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집트 국채 매입은 이집트 정부가 경제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데 따른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IMF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보유액 회복

- 이집트는 2015년 말 외환보유액이 월평균 수입액 2.0개월분(12,123백만 달러)에 불과한 등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2016년부터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2019년 말에는 월평균 수입액의 5.8개월분(41,892백만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게 됨.

구조적취약성

관광 부문의 GDP 내 높은 비중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

- 2019년 세계여행관광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관광 부문은 GDP의 11.9% 비중을 차지하고, 약 2.5백만 명이 종사하는 등(전체 고용의 9.5%)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치안 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2011년 '아랍의 봄' 시민혁명으로 인한 치안 불안의 여파로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였으며(2010년 14.7백만 명 → 2011년 9.8백만 명), 2015년 10월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민항 여객기가 추락* 하는 사건으로 2016년 관광객 유입은 5.4백만 명까지 대폭 위축된 바 있음.
 - *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2015년 10월 ~ 2018년 4월 간 이집트-러시아 정기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된 바 있음.
-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예약이 급감하는 등 관광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 * 3월 16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26명이며, 나일강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고, 홍해 관광도시 후르гада 등에서도 발생된 것으로 알려짐.

성장잠재력

에너지 및 건설 부문 중심으로 경제성장 기대

- 2017년 말부터 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천연가스전(추정매장량 약 8,500억 m³ 규모)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됨. 201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86억 m³ 규모로 2017년 488억 m³ 대비 20% 증가하였음. 또한, 천연가스 생산 본격화로 경제성장률은 2018년 5%대에 진입하였으며, 향후에도 5%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정부는 인구 1억 명 중 20%가 카이로에 거주하는 과밀현상(교통체증, 대기오염, 주거시설 부족 등) 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건설 부문이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이집트 정부는 700km² 면적(싱가포르 크기)의 신행정수도에 약 4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회, 대통령궁, 이집트 최대 규모 공항, 중동 최대 오페라하우스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조달하고, 중국 국영기업 중국건축공정공사(CSCEC)가 신행정수도 공사에 다수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 높은 중국 의존도 및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다수 존재함.

정책성과

IMF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

- 이집트 정부는 2016년 IMF로부터 구제금융 120억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이후 부가세 도입(2016년 9월, 13%) 및 인상(2017년 7월, 13%→14%), 수차례에 걸친 석유제품 소매가격(휘발유·경유·LPG 등) 및 전력·상수도·지하철 요금 인상, 연료 보조금 삭감 등 경제개혁을 단행한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6년 -12.5%에서 2019년 -7.6%까지 개선되었음.
- 아울러 2015년 당시 외환보유액 고갈로(월평균 수입액의 2.0개월분 수준) 고정환율제 하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외환 암시장이 발달하자, 이집트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1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음. 환율은 2015년 달러당 7.67파운드에서 2017년 17.87파운드까지 폭등하였으나, 2019년 16.82파운드 수준으로 안정화된 상황임.
- IMF는 이집트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구제금융을 분할지급하여 왔으며, 2019년 7월 최종적으로 5차 20억 달러를 지급하여 전체 120억 달러 지급을 완료하였음. IMF는 제5차 이집트 경제실사 보고서에서 이집트 당국의 적극적인 경제개혁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 경제성장 회복 등 거시경제지표가 2016년 대비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치안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 재건

- 이집트 정부는 국내 치안 확보를 관광객 유치의 핵심으로 보고 2018년부터 대테러 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IS 지부가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한 대테러 군사 작전에 본격 돌입하는 등 대테러 작전 및 치안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계경제포럼 발표 여행·관광 경쟁력이 2015년 83위(141개국)에서 2019년 65위(140개국)로 향상됨. 아울러, 2020년 말에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2011년 시민혁명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정치 안정

엘시시 대통령, 헌법 개정 통해 2024년까지 장기 집권 전망

- 쿠데타를 주도하여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국방장관 출신의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대선에서 당선되었으며, 2018년 재선되었음. 201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4년 → 6년) 연임 제한을 완화한 결과 엘시시 대통령은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져(개헌 전에는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어(개헌 전에는 2회 연임으로 제한) 이론상 2030년까지도 집권이 가능한 상황임.
- 엘시시 대통령은 정부 비판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체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감시하며, 2018년 대선 당시에는 야권 후보들을 체포, 협박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는 등 권위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경쟁 후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결과 정치적 입지가 강화됨.

사회동향

2013년 제정된 집회·시위법의 시위 억제 효과 크나 2019년 이례적으로 대통령 퇴진 시위 발생

- 2011년 1월 '아랍의 봄' 민주화 시민혁명 발생으로 당시 철권통치로 30년간 장기 집권해온 군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축출한 바 있으나, 2013년 11월 시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진압을 허용하는 집회·시위법 제정이 이후 시위 발생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집회는 사전 신고가 의무적이며,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의 경우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경찰은 사전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진압할 때 사전 구두 경고만 하면 물대포, 최루가스 및 산탄총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2019년 9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모하메드 알리(현재 스페인 망명 중)가 엘시시 대통령과 군부의 부패를 폭로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례적으로 발생함.
* 모하메드 알리는 엘시시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호화 주택 건설을 위해 공금을 유용했다고 밝힘.

2019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는 180개국 중 163위로 열위

- 엘시시 정권 하에서 언론 탄압은 더욱 강화되어 이집트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는 2013년 158위에서 2019년 163위까지 하락함. 2018년에는 5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의 SNS를 미디어로 간주해 정부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매년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들이 체포·구금, 해고, 추방·입국금지 등을 당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음.
-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를 나타내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

국가비상사태 유지하여 테러 및 반정부 집회·시위 억제

- 2017년 4월 카이로의 콥트 교회 폭탄 테러 발생을 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이를 10여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도 국가비상사태를 유지 중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극단주의 테러 활동이 아닌 집회나 시위도 안전 또는 테러 위협으로 보고 시위대를 체포·구금할 수 있어 반정부 집회·시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국제관계

미국, EU,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우호관계

- 이집트는 미국, EU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는 시리아 내전, 카타르 단교 등 중동 지역의 정치·외교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

리비아 사태 관련 터키와 갈등

-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한 이후 리비아 통합정부가 서부를, 분리주의 반군 세력인 리비아국민군(LNA)이 동부를 점령하여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터키·카타르는 이슬람주의를 지향하는 무슬림형제단에 기반을 둔 통합정부를,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UAE 등은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LNA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 말 터키가 통합정부의 파병 요청에 응하면서 리비아 내전은 더욱 장기화, 주변국들의 대리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 엘시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2013년 7월 당시 무슬림형제단출신의 민선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를 축출한 이후 2013년 12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무슬림형제단의 역내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바, 터키의 무슬림형제단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임.
- 한편, 터키는 동(東)지중해 천연가스전 개발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나일 강 상류의 댐 건설 문제로 수단·에티오피아와 갈등

- 나일 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OECD 7등급)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6,000MW(아프리카 최대 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을 건설 중임. 르네상스 댐 완공시 중류에 위치한 수단(OECD 7등급)은 값싼 전력 수입, 홍수 위험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어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 3국 간 입장차가 큰 상황임.
-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의 저수량 확보기간을 두고 에티오피아는 최대 6년, 이집트는 10년 이상을 주장하여 입장 차이가 큰 상황으로, 2020년 2월 말 예정이었던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 장관급 회담에 에티오피아가 불참하면서 3국간 합의는 답보상태에 놓임.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



출처 : 동아일보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채무재조정 수혜 경험 보유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음. 아울러 2012년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미국에 대한 채무 중 10억 달러를 탕감 받음.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201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172.4억 달러(단기 12.5억 달러, 중장기 159.9억 달러) 중 1.3억 달러를 연체 중이나,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0.8%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01)	5등급 (2019.01)
Moody's	B2 (2019.04)	B3 (2018.08)
Fitch	B+ (2019.11)	B+ (2019.03)

거시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부부채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및 경제개혁 추진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및 재정수지 적자 축소 등 이집트의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부채 규모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2019년 말 기준 GDP 대비 84.9%)으로 보고 있음.

- 이집트 경제는 초대형 Zohr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 개시, 700km² 면적(싱가포르 크기)의 신행정수도 건설, 관광객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8~19년 연속 5%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에는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및 외환보유액 고갈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으나, 2016년부터 부가세 도입, 연료 보조금 삭감 등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재정수지가 개선됨. 또한, 시위 및 테러 발생 억제 및 치안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환보유액이 확충됨.
- 경제개혁의 일환인 부가세 및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한때 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하여 구매력이 저하되었으나, 2019년부터 안정되는 추세임.